

보도시점 2025. 7. 23.(수) 11:00 배포 2025. 7. 23.(수) 08:30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통상지형 변화·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경제 공급망 위험요인 선제 점검
- 민생·핵심산업·방산·물류 등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 점검 및 지원방안 등 논의
- 향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핵심사항 최종 심의·확정 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7.23(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주재**하여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산하에 ①경제안보품목·서비스, ②대외 경제전략, ③비축 3개 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중

** 참석부처 : 기재부(주재), 과기부, 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방사청, 산림청, 질병청, 우주청 등

이형일 차관은 “최근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경제·산업·민생의 공급망 취약점을 전면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서비스를 ‘경제안보품목·서비스*’로 지정하여 관리 중인데,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로 지정(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

또한,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을 비롯한 주요 논의사항은 향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 | | | | |
|-------|-----------------------|-----|-----|------------------------|
| 담당 부서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최지영 (044-215-7870) |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민 (sangm25@korea.kr) |

